

한국주거의 재조명

주택평면의 변천과
주거생활양식

박 경 옥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1. 주택과 주거생활양식

‘주택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는 명제는 다양한 생활이 주거공간에서 모순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과 생활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 불편한 경우처럼 서로 유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구화를 선진화로 생각하였고, 1960~70년대에 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하여 대량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높이기 위하여 서구적인 생활상을 설정하고 평면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주거와 생활간의 부적응을 시행착오적으로 겪어야 했던 것이다.

주거와 생활의 부적응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 생활의 편익과 관습에 의하여 생활과 주거의 대응관계로 수렴해가며 한국적 주거생활양식으로 정착해 간다.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주택형태와 생활상이 주거생활양식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양식이 변화되어 주택평면을 바꾸기도 한다.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생활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면 이에 맞는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주택생산방식의 변화, 주택내 생활가전제품, 가구, 연료 및 난방방식, 급배수시설설비 등 기술발전이 생활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나서 공간구성이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발전과 기술발전, 생활양식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평면변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

서 주거공간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지칭하는 주거생활양식이 주거공간으로 가지적으로 나타나서 생활양식을 투영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생활양식은 일정한 지역이나 사회에서 공통된 형식을 갖는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의식주는 물론 인간 행동의 본연의 상태, 삶의 방식, 생산활동 등 거의 전 생활에 걸쳐 나타나는 생활패턴 또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생활양식은 가치관, 생활의식, 행동 등의 복합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생활양식을 주거공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 주거생활양식이다. 주거생활양식은 주거공간에서 개인을 포함한 가족원 모두에게 일어나는 총체적인 생활방식을 말한다. 주거생활양식은 그 나라의 기후, 풍토와 그 민족의 습관, 생활전통, 문화수준 등에 의하여 각각 차이가 있다. 현대는 문화교류의 시대로 다른 나라의 생활문화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각 문화권에 따라 고유하게 지켜지는 주거생활양식이 있으며 이것은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가족에 따라 생활양식이 다양해졌으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에서 서구화된 생활양식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아졌다. 그러나 일상·비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택 내에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고유한 생활양식과 주택이 적절한 대응관계를 갖게 되면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높아진다.

한국주거의 재조명

주거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측면이 반영된 주거가치관, 행위적 측면의 주택평면과 관련된 행동양식(기거양식, 착탈양식, 입욕방식), 공간사용방식(제생활행위의 독립성과 중복성), 물질적 측면의 규모별 주택 구매력, 가구 및 설비의 소비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주택규모는 주거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며, 주거공간 내에서 가구와 내구소비재(자가용, 비디오,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전화)의 보유정도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이러한 가구 디자인의 종류, 배치방식은 가족의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정체감을 나타내 준다.

주거생활양식은 계층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상류층은 다수의 서민층과 구별되기 위하여 서구적인 시설 설비 및 생활양식을 빠르게 수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하의 계층에서는 상류층의 설비 및 생활에 대해 조정을 해 가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수의 중류층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주거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의 도입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 이전과 다른 주거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주거생활양식을 행위적 측면에서 보려면 생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생활은 일상생활과 비일상생활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은 매일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침, 식사, 단란, 일상적인 접대, 가사작업 등이며, 비일상생활은 통과의례와 연중행사에 관련된 일들이다. 통과의례와 연중행사는 사회변화에 따라 소멸되거나 사회화가 이루어져 주택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새로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현재 주택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비일상생활은 제사, 돌, 환갑, 생일, 설날, 대보름, 추석, 크리스마스, 집들이 등의 가정행사이다. 가정행사를 주택 내에서 함으로써 행사와 관련성을 갖는 장소의 의미가 인지되며 가족을 정서적으로 연결시키고 세대간의 유대를 강화시킨다.

본고에서는 주택평면의 변천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택 내 생활가전제품, 가구, 연료 및 난방방식, 급배수시설 설비 등의 변화를 알아보면서, 주거생활양식을 행동양식, 공간사용방식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생활과 단위주거 공간과의 대응 또는 모순 관계의 양상을 통해 1960년대 이후 50년간의 한국적 주거생활양식을 개관해보고자 한다.

2. 사회·경제 변화와 주택¹⁾

국가적 경제발전을 목표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0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도시의 주택부족은 여전히 심각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였다. 총인구 및 주택조사가 1960년부터 시작되어 정부는 주택에 대한 지표들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1960년에는 주택부족율이 20.9%에 이르렀고 특히 도시지역은 37.9%에 달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정부의 주택투자는 연평균 1.7%에 불과하였고 전체 투자 중 공공 부문은 8.8%, 민간 부문이 91.2%로서 주택건설은 민간이 주도했다. 5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에서 건설되었으나, 1970년대 초까지 지역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이 지은 단독주택들이 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교적 고소득의 새로운 중간계층이 대도시에 집중되었고, 이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수요가 생겨났다. 산업화는 시멘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서 아파트와 같은 고층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난방방식은 연탄을 열원으로 한 온돌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수세식 변소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산업화는 구미선진국을 추종하는 ‘근대화’에 주된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주택에 대한 생각도 위생과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우선하였다.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에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전제품이 빠르게 도입되었다. 다양한 가전제

1) 윤정숙·유옥순·박선희·김선중·박경옥(2007). 한국주거와 삶. 교문사. 124-129 을 요약함.

한국주거의 재조명

품이 생산되어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 세탁기는 1969년부터 국내에 생산·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전기다리미는 1960년대 말부터 생산이 확대되어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전기다리미를 보유하였다. 의복도 양식화가 되었고 가족은 다량의 의복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수납하는 옷장, 서랍장 등의 가구를 다양하게 구입하게 되므로 주거공간의 면적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식생활을 변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취사연료 및 주방기기의 생산이었다. 1966년 연탄파동은 보조연료로 석유코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냉장고는 1965년 최초의 국산 냉장고가 등장한 이래 1970년대 후반에는 보급이 보편화 되었다.

60년대의 개발과정을 거친 한국은 70년대에 이르러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격동기를 맞이하였다. 1970년대 초 세계경제의 슬럼프와 함께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다. 저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의 소요로 정부는 대중의 복지정책을 고려하게 되었고 1972년 250만호 주택건설 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시기는 민간주택건설업을 육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민간주도적 주택공급전략을 시행한 시기였다. 민간주택건설업은 아파트 위주의 건설이었으며 단독주택은 집장사들에 의해 활발하게 지어졌다.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던 중화학공업의 개발은 1974~75년의 오일쇼크로 인해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1977년의 중동의 건설수출로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한국경제를 한 차원 높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는 주택건설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기술적, 질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동건설 붐을 타고 한국의 건설기술자들의 시공기술이 한 단계 상승하였고 경제발전에 힘입어 건축 전문가에 의한 주택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물론 강남개발로 대변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들의 아파트가 도시의 일상적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LDK 방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법 등의 영향을 단독주택도 받게 되었다. 소득의 향상으로 거주자들이 주거수준에 대한 요구가 커져서 싱크대와 욕조시설 등과 같은 위생설비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의 현대주택은 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본격적으로 고층화, 양식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주택 내부의 공간구성도 다양해졌다. 주택유형의 건설비율도 1975~1980년은 단독주택이 60.2%인데 반해 1981~1985년에는 아파트가 52.5% 건설되었다.²⁾ 따라서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대중주거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게 되고 주거공간의 새로운 변화를 아파트가 이끌어 나가게 된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1976년 818달러, 1978년 1,431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70년대 후반 가정에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대형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높아졌다. 1973년 석유파동으로 가스의 사용이 본격화되었으며 1974년에는 가스레인지가 개발되어 부엌에 도입되었다. 전기밥솥, 전기 프라이팬과 같은 가전 주방용품을 이용한 취사기기의 변화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되어 이러한 기기들의 보급은 주방에 다양한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더 넓은 주방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증가, 외식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정 내의 식사가 감소하고, 장과 김치 담그기를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

70년대의 주거생활은 입식 가구의 도입으로 생활방식의 입식화가 일반화되었다. 자녀방에 의자와 책상이 일반화되었으며 부엌설비의 발달로 1970년대 중반에 대도시의 단독주택의 부엌은 입식화가 마무리 된다. 식사는 부엌 옆의 식사 공간에서 하게 되어 식침분리가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에 의한 안정기로 중류계층의식이 높아지고 여가, 문화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투기에 위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정부도 주택건설 200만호 사업, 신도

2) 유주현 편(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 53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표 1] 광복 이후 주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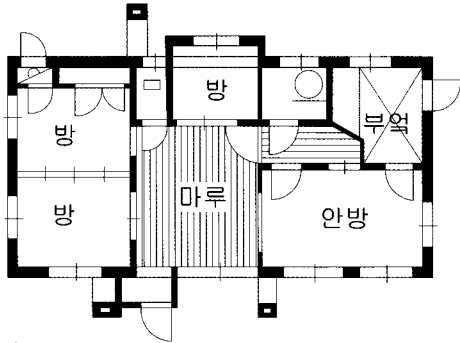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사회·문화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전쟁재해복구 및 난민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가상승으로 토지이용 고도화 필요 증대 		
연료 및 난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본격적인 보급 연탄개별온수보일러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연탄의 등장(조개탄) 개량식 연탄 아궁이(5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집중식 중온수난방(한강맨션) 70년대 중반 중앙공급식 난방(본격적 대규모 APT) 중앙집중식 고온수난방(반포) 70년 파이프 매설식 온수온돌시대 연탄보일러 · 가스보일러 등장 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APT에 도입) 76년 LPG가스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87년 LNG (가정용 연료로 도입) 86년 열병합발전 지역 난방(목동신시가지) 태양열 주택(과천)
급수·위생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8년 위생변기 보급 62년 수세식 화장실(마포) 65년 반수세식 화장실 67년 샤워기·세면기 보급 세대별 수도계량기(수유 국민주택) 국민주택에 최초로 수세식 설비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년 위생기구 고급화 	
구조·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4년 흙벽돌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년 시멘트 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년 콘크리트 평슬라브 		

자료: 이순희·박용환(1997). 주거용 연료의 전환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도시주거의 근대화과정에 관련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8), 67쪽 · 유재우(2002). 한국도시주택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평면특성·주양식의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6 · 157 · 160 · 174쪽 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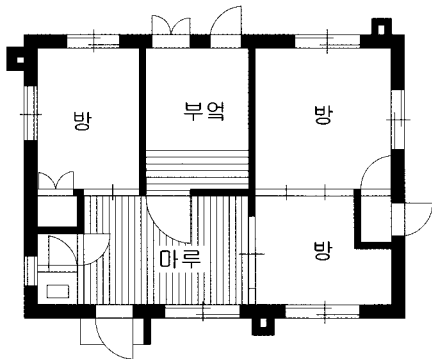
시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주택의 질적 개선에 정책목표를 두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었지만 1997년말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로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세계화, 정보화를 표방하던 시기로 컴퓨터, 인터넷의 사용으로 정보를 얻고 사람간의 소통방식을 바꾸게 되었고 신축 공동주택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치가 건설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기법으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건강이 중요한 이슈가 되므로써 건강과 여가시간을 중요시하는 주택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주택의 주거수준에 대해 전반적인 개관을 해보면 가구당 방수는 1970년대에 2개에서 1995년에 3.1개로 되었으며 면적도 증가하여 2005년에는 66.1㎡로 넓어졌다. 시설보급률이 전체 주택의 50%를 넘어서면 일반화된 것으로 볼 때,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연탄보일러의 보급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일반화 되었으며, 온수목욕시설은 1990년대 초반이후에 일반화되었다. 난방방식은 1980년에는 연탄아궁이가 많았고, 1985~1990년에는 연탄보일러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2000년대 이후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표 2).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2] 공영주택 평면형 - 모퉁이부엌형
(자료 : 유재우, 2006, 103쪽)



▲ [그림 3] 공영주택 평면형 - 중앙부엌형
(자료 : 유재우, 2006, 103쪽)

1956년부터 1959년까지는 주택규모가 전면 3칸, 12평~20평 규모로 확대되면서 마루가 중앙에 오는 평면이 나타난다. 안방을 통해 모퉁이 부엌에 출입해야 하는 평면은 복도를 거쳐 부엌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평면형으로 변경되거나(그림 2), 평면 후면부의 중앙에 부엌을 두고 그 앞에 마루와 문을 두어 전면 마루에서 직접 부엌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평면으로 되어 주부의 동선을 단축하게 되었다(그림 3). 이 시기 주택의 특징은 동선의 편리함과 경제적인 효율성에 유리한 집중식으로 건축되었다. 마루를 중심으로 각방으로 출입하도록 바뀌었고, 부엌에서 방에 난방을 해야 하므로 부엌과 안방이 한 단위로 계획되어 부엌의 출입은 안방을 거치거나 뒷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와 같은 부엌과 안방중심의 공간구성은 주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에 적합한 주택이었다.

마루중심형의 평면은 이후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주택에서도 나타난다. 공영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됨으로써 광복이후의 근대교육을 받은 건축가와 입주자들이 새로운 주양식의 근대적 평면형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규모는 18~20평형으로, 호평을 받은 것 중 20.0-5WT(59)형은 그 후로도 가장 많이 지어졌는데 마루방이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 끝에 있어 거실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그림 4). 이 평면은 측면 현관 진입과 남북으로 나뉜 실 배치에 부분 중복도, 모서리의 독립적인 거실 배치 등 영단주택과 서구주택의 평면구성 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대한주택영단은 1963년부터 대한주택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민영주택보다 평수가 작은 시멘트블록을 사용한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다. 1960년대를 전후해서 제안된 공영표준형주택 중 가장 일반적인 형은 전면 3칸으로 전면엔 전통주택의 공간배치인 방-마루-방이 배치되어 있고, 후면에 방, 부엌, 현관, 화장실이 있는 평면이다. 후면의 부엌과 전면 마루의 동선관계가 연결되는 평면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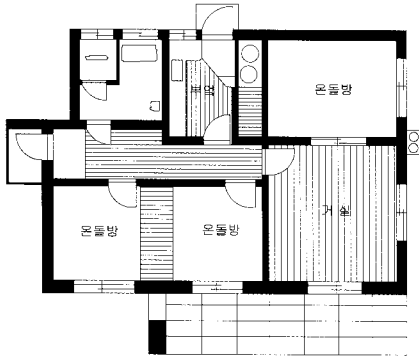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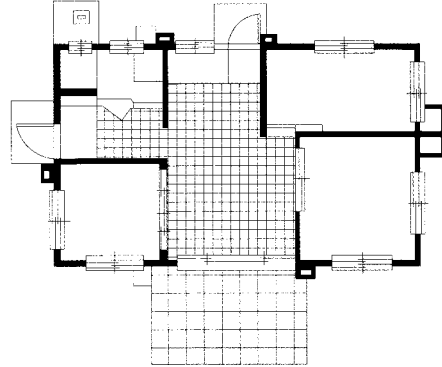
1960년대에는 부엌이 후열의 중앙에 설치되고 좌우에 방이나 위생공간을 배치시켜 전열의 마루공간과의 연계성을 원활하게 한 평면도 있다. 이것은 안방과 부엌과의 전후관계가 처음으로 변화한 형이다. 1960년대까지는 nLK 형이 일반적인 생활형이었고 부엌 옆의 식사공간은 재래식 부엌에 찬마루공간을 확대한 형이다.⁴⁾ 1966년 이후에는 모두 마루형으로 정착되어 마루와 부엌사이에 문이 있거나 복도를 두는 모퉁이 부엌형으로 정착되는 경향이다.⁵⁾

공영주택 중에는 전통주택에서 사용하던 평면구성과 다른 방식들이 기능성이나 합리성을 내세워 여러 면에서 시도되었다. 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북측 현관과 측면 현관, 후면 부엌, 방과 공적영역·생리위생공간을

4) 유재우·조성기(2001). 광복이후 도시형 표준주택의 평면특성과 그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12), 77-86쪽.

5) 유재우(2006). 평면유형 변화로 본 공영단독주택의 근대적 변용. 건축역사연구, 15(2), 95-114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4] 1959년도 20.0-5WT형⁶⁾▲ [그림 5] 63년도 14.8평 표준형⁷⁾

별도의 영역으로 나눈 것, 일본 주택의 영향을 받아 평면 상에 마루를 배치하지 않거나 속마루를 사용한 형태 있다. 이러한 평면들은 한국적인 생활양식 및 의식과 괴리를 느끼게 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공영주택에서 난방방식과 취사연료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식사공간에 대한 계획이었다. 1962년부터 연탄용 아궁이가 온수보일러로 변경되어 부엌과 안방과의 연결관계가 해체되고 부엌과 마루가 가족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부엌과 인접하여 식사공간을 확보하고 거실과도 연결시킨 리빙 키친(Living Kitchen) 형식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광복이후의 근대적 주거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안방-마루-건넌방으로 구성되는 평면에 대한 재래질서에 근대적 주요요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해석한 ‘마루중심’ 평면형이 성립되었고, 민간에서 이를 대폭 수용해 새로워진 근대주거형이 정착될 수 있었다(63년도 14.8평 표준형, 그림 5). 그러나 실제 사용면에서는 마루는 난방이 안되었고 식탁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여름철에만 식사공간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아파트의 거실중심형 평면 성립

정부는 1962년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아파트를 공급하였다. 평면계획상의 특징은 전면에 안방

과 거실을 두었고 부엌을 안방 뒤에 배치한 L/K형식이었다(그림 6). 이 거실은 바닥재료가 마루였으며 서양의 거실과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여름에 식사를 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중심공간이 되었다. 이 거실은 단독주택 평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온 마루와 같은 성격으로 전통주택의 대청과 마당의 속성이 복합된 공간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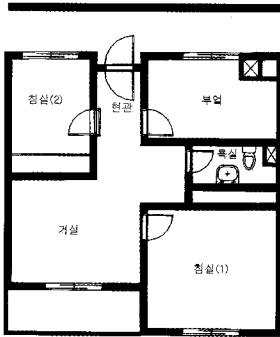
마포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은 거실의 구성방식을 둘러싸고 중요한 갈등과 변화 과정을 겪는다. 한편에서는 단독주택에서의 경향과 유사한 거실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적 계획규범의 침실집중 구성방식(그림 7)이 등장하여 두 가지 평면유형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재하게 된다. 침실 집중방식은 1970년대 중반이후로는 점차 사라지면서 거실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구성방식으로 정착한다. 거실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성방식은 연탄온돌난방에서 중앙난방으로 변화하면서 후면에 위치한 부엌, 식사실이 연결된 LDK형식으로 실내공간의 개방적 공간감을 강화하며 1980년대 이후에는 이 형식이 정착되어간다(그림 8). 전면 3칸의 중대형 평면에서는 전면에 방-거실-방의 구성을 하는 방식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85㎡이하에서도 나타나며 사업성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을

6) 박정현(1991). 해방이후 혼란기의 주거건축동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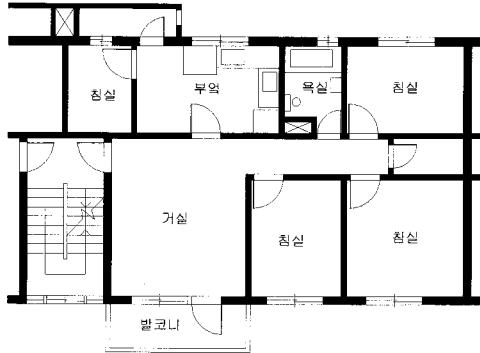
7) 임창복(1987). 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 주택, 제48권, 171쪽.

8) 공동주택연구회(1999).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3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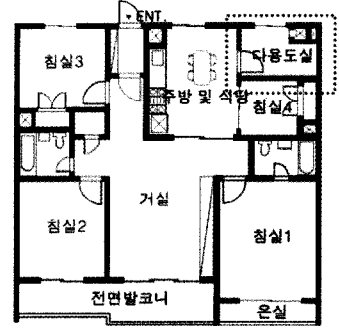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6] 1962년 마포아파트 12평형



▲ [그림 7] 침실집중형 아파트 주공 한강맨션 32평 (1970)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172쪽)



▲ [그림 8] 논현동 경북아파트 42평형(1978)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177쪽)

넓게 확보하는 한국적인 계획규모로 2000년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⁹⁾.

2) 온돌과 입식 생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권에서는 주로 좌식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온돌방식은 아파트 형식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서구의 주택형태인 아파트가 건설되었어도 방의 난방은 바닥난방 방식을 택하였다. 1962년 주택공사에서 지은 마포아파트는 12~16평의 소형규모로 서민용 아파트였는데 온돌방에는 파이프를 깔아 연탄난방을 하였다. 거실은 마루바닥으로 하여 온돌과 마루라는 한옥의 이중적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가져왔다. 아파트가 서민용이 아닌 중산층이상을 위한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중대형 규모로 공급한 1971년의 한강맨션이었으며 난방방식은 온수를 이용하는 기름보일러식 중앙난방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라디에이터 난방에 의존했던 거실에도 파이프 온돌 난방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도시가스, LP가스가 난방에 이용되어 가스보일러 난방과 기름보일러 난방 비율이 유사해졌다⁹⁾.

주택 내 모든 실들에 바닥 난방을 하는 것은 입식화가 이

루어졌어도 좌식생활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따른 기거양식을 보면 실제 생활양식의 입식화보다 가구의 입식화가 선행되고 있다. 1990년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주택에서 입식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은 부엌, 거실, 자녀실의 순서였다¹⁰⁾. 특히 아파트의 거실은 대부분 입식가구가 배치되어 있으나 사용 방식에 있어서는 바닥에 앉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것은 좌식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작업을 장시간 할 때, 휴식을 취할 때, 의례적인 접대를 할 때 의자에 앉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중 특별한 행사나 손님을 위한 정중한 식사는 좌식으로 해야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3) 안방 사용의 특성

□ 사적 공간 또는 공적 공간

우리나라 주택에는 개인실인 '침실'이 아닌 '방'으로서 면적이 크며 좋은 위치에 놓이는 '안방'이 존재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방은 침실로서 사생활의 독립성이 우선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안방은 부부 행위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가족구성원들에게 개방되는 방으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지속되어 왔다. 방 사용에서도 가족의 위계

9) 전남일·은남순·박진희·이장섭·김소연(2007). 주거설비의 진보와 주거생활 기술화 측면에서 본 한국주거의 근대화 논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3), 118쪽.

10) 윤정숙·이은경(1990). 한국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전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8(3), 53-65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적 질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부부 또는 노인세대가 안방을 사용하였다.

안방의 사용방식은 시대적으로 서울과 지방,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의 단독주택에서의 안방은 부부취침 겸 가족중심의 공간이었고 안방중심적인 좌식생활을 하였다. 안방은 부엌에서 난방을 하였으므로 안방과 부엌이 한 단위로 구성되었다. 난방방식, 취사의 문제로 부엌은 입식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는 겨울에 안방, 여름에 마루/거실에서 했다. 마루/거실은 안방의 계절적 보조역할을 하였고 다수가 모이는 일상적인 사용보다는 주택 내 개방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더 컸다. 손님접대도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여름에 마루를 사용하였다.

80년대 단독주택의 안방과 노인방에서는 좌식의 기거양식이 지배적이었고, 난방방식이 연탄보일러, 가스나 기름보일러로 바뀌게 되어 거실까지 바닥난방이 되어 거실이 텔레비전을 보는 가족단란의 공간으로 정착되어 갔다. 기거양식은 여전히 입식 또는 입식과 좌식의 절충이 많았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실이 입식화 진행의 초기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안방은 부부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가족의 단란과 접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거실과 안방이 기능분화되는 과도기였다. 자녀방은 입식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입식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서울에서도 완전히 입식화된 경우보다는 입식과 좌식의 절충식이 일반적이었다.¹¹⁾

대중적인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양식은 90년대 중반까지도 가구의 도입이 늘어나지만 안방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았고, 거실에서도 좌식 비율이 의자식보다 더 높았다. 친인척이 다수 모이는 제사는 안방에 침대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는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까지 보수성이 강한 지방의 대도

시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었다. 실의 호칭은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실에 대해 내재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안방’에 대한 호칭은 집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안방에서는 전통적인 좌식 생활의 기능도 지속되었으며, 거주자들은 안방을 부부만의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단란, 손님접대, 제사행위 등 공적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 혼재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¹²⁾.

단독주택에서 2000년까지 안방이 강한 ‘집의 중심성’을 지속하는 것에 비해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안방이 부부의 사적공간으로 변해갔다. 1990년대 초반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의 30~40평형대 아파트의 조사¹³⁾에 의하면 안방은 개인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조사대상인 30평형과 40평형 모두 1970년대 계획되어 이후 가장 많이 공급된 평면으로 일반해로서의 평면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그림 9, 10). 안방은 가사작업, 몸단장, 휴식 등의 개인생활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TV시청을 하는 공동생활행위는 거주자의 20%정도였다. 안방의 주생활행위에서 가족간 교류행위나 접대행위가 나타나지 않아 안방은 사적공간으로의 기능이 강해지고 있었다. 방의 부부침실화 경향은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방은 안방에서 의례적·격식적인 모임을 많이 하여서 안방에 대한 집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이 남아 있어서 서울과 차이를 보였다.¹⁴⁾ 안방의 공적 기능이 축소된 반면 거실의 주생활행위는 TV시청을 포함한 가족단란 행위, 외부손님접대, 예우할 손님식사 등의 공식적인 접대행위가 거주자의 80~90%정도였으며 휴식, 독서, 취침생활 등의 개인생활행위 60%이상, 가사작업행위도 거주자의 50%정도가 하고 있어서 거실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구적 개념의 가족실과 거실의 기능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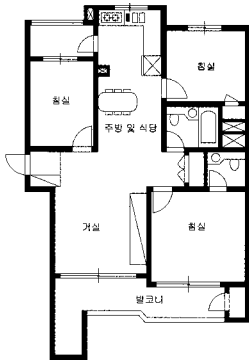
11) 윤정숙·이은경, 위의 책, 53-65쪽.

12) 윤재웅·이미혜(2000).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지, 11(3), 6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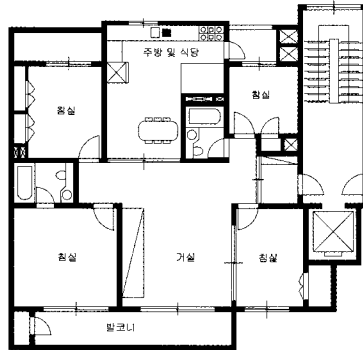
13) 김미희·윤복재(1992). 평면규모 30평형대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1), 12쪽.

14) 박경옥·김선중(1988). 부산·울산지역 집합주택의 공적영역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4),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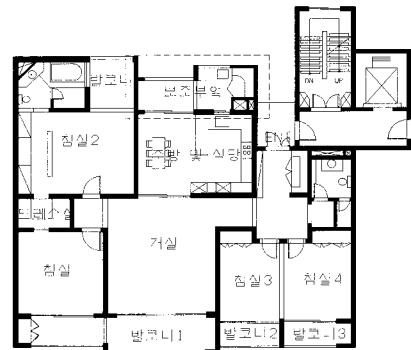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9] 평면 3침실형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204쪽)



▲ [그림 10] 4침실형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204쪽)



▲ [그림 11] 안방후면형 아파트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226쪽)

있었다.

안방의 취침방식은 침대 사용이 48%, 자녀방은 56%이며, 거실의 소파배치는 97%, 부엌의 식탁배치는 79%로 거실과 부엌, 자녀방, 안방 순서로 입식화가 진행되어서 안방이 좌식 생활에 대한 보수성이 가장 큰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침방식의 입식화는 평면규모가 커질수록 빨리 진행되고 공간적 제약이 없는 경우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므로¹⁵⁾ 안방이 부부침실로서의 사적 공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안방이 갖는 가족공용기능이 사라지고 부부침실로 전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안방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계획을 재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침실용의 안방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는 거주자들을 겨냥하여 계획된 안방후면배치가 1990년대 후반 공급되었다(그림 11). 부부침실은 주로 저녁시간 이후에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아침이나 낮에 많이 사용되는 자녀방, 식사실 등 다른 실을 우선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안방후면배치평면 거주자중 차후 동일 평면배치의 선호는 일반평면 배치보다 선호도가 높으며 안방 향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남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여서 일정한 선호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방후면배

치평면은 안방을 후면에 배치하는 경우 안방대신에 전면 에 어떤 실을 배치할 것인지와 안방과 각 실의 규모배분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¹⁶⁾ 또한 주택에는 안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거관으로 인해 현대주택에서도 여전히 ‘안방’이라는 호칭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안방의 ‘집의 상징적 중심성’을 어떻게 유지시킬까를 고려해야 한다.

□ 비일상생활(가정행사)을 위한 공간

전통적인 생활에서는 비일상생활인 연중행사와 통과례가 주택에서 이루어졌으며 주거공간이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중행사나 개인의 일생을 통해 한번만 일어나는 행사를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집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안방과 격식적인 공간으로서의 대청이 이러한 비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했었다. 현대주택에서는 생활의 근대화, 서구화에 따라 비일상생활이 상당부분 소멸, 축소되었지만 민속 또는 관습에 의해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

1992년도와 2002년도에 서울 거주 자녀성년기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중행사와 통과례를 비교분석한 연구¹⁷⁾

15) 김미희·윤복자, 앞의 책, 12쪽.

16) 박인석·김진환(2002). 안방후면배치 아파트 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2), 50쪽.

17) 장상옥·신경주(2003). 일상 및 가정행사 공간을 통해 본 거실과 안방의 기능-1992년과 2002년의 자녀성년기 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5), 89-92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를 보면 1992년도에 연중행사(신정, 설날, 대보름, 추석, 제사)를 하는 비율이 52%인데 2002년에는 44%였으며, 통과 의례(백일잔치, 돌잔치, 환갑, 고회)는 1992년 26%, 2002년에 33%가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중행사는 1992년도에는 안방과 거실의 사용비율이 50%와 47%로 비슷하였지만 2002년에는 거실 78%, 안방 21%로 거실의 사용이 월등히 높아졌다. 통과의례의 공간사용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일행사는 2002년 거실의 사용비율이 84%로 연중행사나 통과의례보다 거실에서 하는 비율이 더 높다. 축하행사(집들이, 결혼기념일 등)는 거실에서 하는 비율이 94%였고 기타행사(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는 80%였다. 제사는 거실(33%)보다 안방(67%)에서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1992년에는 안방에 대한 집의 중심성의 개념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2002년에는 거의 모든 행사가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거실 사용이 증가한 것은 안방에 침대와 가구가 도입된 것, 전통주거의 마루에서 수행되던 기능이 관념적으로 현대의 거실로 이어진 것, 거실이 주택 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어서 다인수의 가족, 친인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3) 부엌/ 다용도실과 가사활동

□ 부엌과 설비

부엌의 위치는 난방연료, 가사노동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변화한다. 단독주택의 난방 연료가 장작 또는 연탄이었던 경우는 부엌에서 안방의 난방과 취사를 겸하게 되어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연탄보일러가 사용되고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면서 부엌의 위치는 안방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며 부엌높이가 거실과 같아지면서 부엌면적을 확장하여 식당을 겸하게 된다. 입식부엌과 식탁을 사용하는 식사공간 도입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농촌여성인구의 유입으로 중산층 가정마다 가정부가 가사노동의 주체가 되므로 부엌의 위치가 주

택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지속된다. 주부가 가사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엌과 식사실이 인접하고, 점점 이 두 공간이 거실과도 개방되어 가사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부엌·식당·거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취급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는 거실의 기능이 커지면서 거실과 부엌이 분리된다. 부엌과 거실이 통합되지 않는 것은 음식조리과정이 복잡하고 음식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문화로 인해 취사공간과 식사공간만을 연결하고자 하는 심리와 복잡한 조리과정 전후의 모습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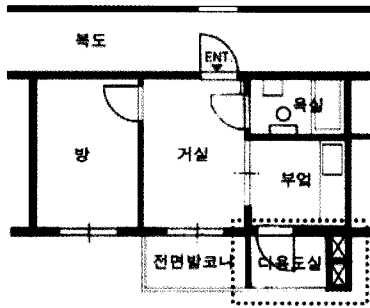
아파트 형식에서 입식부엌이 도입된 것은 마포아파트(1962년)로 취사·난방연료는 연탄을 사용하였고 부엌과 식사공간은 연속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대량 공급된 아파트에서 입식부엌의 작업대는 점차 개선되어 외관으로 일체화된 싱크대가 등장하여 진일보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윈터치 레버식의 급수시설과 개수대, 가스레인지가 일체화된 시스템 키친이 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주부들이 아파트 선택 시 부엌공간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면서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일반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일체화한 빌트인 시스템이 부엌에 설치되었다.¹⁸⁾ 취사의 방식은 1970년대 이후 LPG 가스와 전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스레인지, 전기밥솥이 개발되었으나 LPG 가스와 가스레인지의 사용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보편화되었다.

1990년의 서울지역 아파트의 부엌과 식당은 인접하고 거실은 분리되어 있는 거실개방형평면에서 식당/부엌에서의 주생활행위는 가족식사 90%이상, 친한 친구식사, 예우할 손님식사 60%, 후식 25%, 자녀대화 18%로 가족단란행위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어서 식사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으로 변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¹⁹⁾ 최근에는 부엌 남면화, 거실·부엌·식당의 구역화 등 부엌의 사회적 공간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18) 전남일의 4인, 앞의 책, 117-119쪽.

19) 김미희·윤복자, 앞의 책, 25-39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12] 마포아파트 15평형(1962)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176쪽)



▲ [그림 13] 여의도동 한성아파트 51평형(1977)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177쪽)

□ 다용도실과 가사보조활동

식생활과 세탁을 보조하기 위한 가사활동에 대한 공간의 구성과 변화도 문화적인 주거생활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식생활은 조리 방식과 저장음식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음식은 천연 비가공상태의 재료가 주를 이루므로 다듬고 준비하는 데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위는 입식 부엌의 바닥에서 좌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오랜 시간 푹 삶고 끓여야 하는 음식이 있으며 강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도 있다. 계절 따라 말리고 저장하는 식품들을 위한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김치, 간장·된장과 같은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행사의 음식준비를 위한 갖가지 가사도구를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세탁방식의 특성에 따른 공간대응의 문제이다. 주택이 바닥난방이며 바닥에 앉는 좌식생활이 남아 있어 청소할 때 걸레로 닦으며 걸레는 손빨래하고 있다. 세탁기를 사용하면서도 주물러 빨고 삶는 세탁방법도 계속 지속되고 있으므로 손빨래와 삶는 빨래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단독주택에서는 마당이 사용되었고 아파트에서는 부엌과 연결된 위치에 다용도실이 배치되었다. 초기의 가사지원공간인 다용도실은 마포아파트를 시초로 1970년대 보편적인 주거공간으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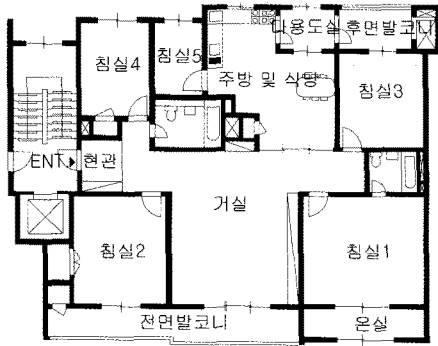
리 잡는다. 1962년 다용도실이 마포아파트 15평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연탄을 저장하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그림12). 다용도실은 복도형보다 계단형 주거동에 배치가 유리하였으므로 60년대에 계단실형에는 예외없이 단위주택에 다용도실 설치가 일반화되었다. 다용도실 이용방식이 우리의 생활양식과 부합되자 1970년대 이후에는 주거동 형식에 관계없이 중형 이상의 규모를 가진 편복도형의 단위주택에서도 부엌을 중심으로 한 다용도실 설치가 보편화 된다(그림 13)²⁰⁾.

난방방식의 변화는 다용도실의 위치를 후면발코니와 결합시키게 된다. 1980년대 후반이후 개별난방의 기름보일러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이 후면발코니에 배치되고 여기에 다용도실이 같이 배치된다. 이후 계단형 주거동에서 후면발코니와 별도로 분리한 다용도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그림 14). 후면발코니는 세대내의 환기, 채광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능의 확장도 꾀하였다. 다용도실이 빨래나 식품세정 등 가사작업보조공간이라면 후면발코니는 수납까지 고려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용도실은 확실하게 후면발코니가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많은 거주자들은 평면에 표시된 것과는 상관없이 후면발코니를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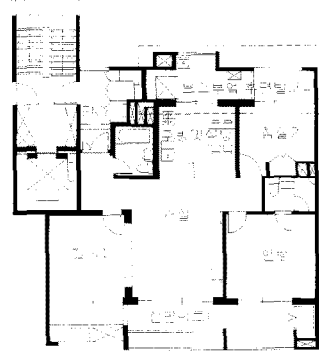
20) 윤정숙 외 4인, 앞의 책, 177쪽.

21) 윤정숙 외 4인, 앞의 책, 206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 [그림 14] 개포동 경남아파트 2차 59평형(1984)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205쪽)



▲ [그림 15] 울산시 약사동 삼성래미안 2차
(자료 : 윤정숙 외 4인, 2007, 226쪽)

이라 불러 가사보조공간의 필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²¹⁾

1998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각 건설업체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발코니 공간의 활용에 대해 모색하게 된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계산되는 부엌 후면에 위치한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공간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유효하였으므로 보조작업대를 설치하여 제2의 부엌공간을 제공하였다(그림 15). 작업공간으로 설비가 완비되고 수납공간이 충실해진 보조부엌은 수요자의 호응을 받게 되고 최근까지 적용되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아파트에 우리 식생활문화와 세탁문화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4) 화장실/욕실과 입욕방식

전통주택에서 배설을 위한 공간은 마당에 있는 뒷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목욕은 정지(부엌)에서 물을 데워 몸을 씻거나 공간에 나무로 만든 목욕통에서 하는 정도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식·양식주택, 영단주택 내부에 변소와 목욕실이 설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 시설을 주택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편리성과 위생관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동주택형식에서

화장실 공간이 처음으로 주택내부로 들어온 것은 1941년 영단주택이 시초였고 1959년 개명아파트에서는 욕조와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현관 옆에 설치되었다. 초기의 화장실은 세면기가 없고 욕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욕조를 먼저 마련해 목욕을 할 수 있게 하되, 세면은 대야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공간과 설비적 제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배설 및 목욕 행위의 정착과정에서 보여지는 전통적 생활양식의 일부 수용으로도 볼 수 있다.²²⁾

화장실 공간과 시설이 도입되었다라든가 생활습관과 맞지 않아 세수대야를 이용한 세면과 발씻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빨래 공간으로 사용되어 세면대 없는 화장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과 같이 세면기, 욕조, 양변기를 모두 갖춘 욕실은 1962년 마포아파트가 처음이었고 변소가 퍼내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뀐 것은 아파트 건설이 계기가 되었다.²³⁾ 1976년부터 대한주택공사는 모든 아파트에 입식의 양식대변기를 설치하여 보편적 설비로 확산하였는데 이것은 도시 인프라로써 상하수도 설비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²⁴⁾ 1980년대에는 아파트의 욕실 겸 화장실은 세면대, 양변기, 욕조가 세트화되어 지속적으로 설치되었고 욕실공간은 침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침실과 근

22) 전남일·양세하·홍형욱·손세관·은난순(2007). 주거 내 배설 및 목욕공간의 변천과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24쪽.

23) 전남일 외 4인, 위의 책, 24쪽.

24) 전남일 외 4인, 앞의 책, 117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접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욕실겸 화장실에 세면대, 양변기, 욕조가 같이 설비되는 것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면대, 양변기, 욕조를 별도로 또는 최소한 두 개의 공간에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욕조와 변소공간을 각각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입욕, 세면을 한 공간에서 하고 용변을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침실 옆에 세면 행위를 함께 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여 지금도 한 공간에 입욕, 세면, 용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구의 영향으로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평면 모두에서 세면·배설·입욕에 대한 기능분리에 대한 요구로 세면대, 양변기, 욕조를 분리하여 생리위생공간이 확장되는 것보다 안방 전용의 별도의 화장실을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30평형대 이상에 화장실이 1개에서 2개가 설치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며 당시로서는 특화된 마케팅의 기법으로도 사용하였다. 화장실의 위치는, 가족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외부 환기가 되지 않는 방과 방 사이에 베스 유니트(bath unit)형으로 설치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샤워기와 세면대·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안방전용형식이었다. 안방 전용형식은 30평형대 후반부터 탈의실의 기능의 전이공간이 배치되는 경우도 생겼다²⁵⁾.

욕실겸 화장실이 서양식의 세면대, 양변기, 욕조가 한 공간에 있는 방식으로 되어 왔지만 목욕행위를 하는 방식, 순서 등에 서양의 입욕방식과 차이가 있다. 서양인은 욕조 안에서 씻고 샤워로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난 후 욕조 밖에 나와 몸을 씻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욕실이 건식 또는 습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1980년대의 서울·부산의 중산층의 입욕방식²⁶⁾은 샤워를 하거나 욕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샤워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95%였고, 욕조에 몸을 담구며 몸은 욕조 밖에서 씻는 것은 겨울에 90%의 거주자가 하였으며, 여름에는 욕조에 몸을 담그지 않고 욕조 밖에서 씻는 패턴이 80%로 계절적인 차이를 보여서 서양식의 욕조 안에서 모든 씻는 행위를 하는 것과 달랐다. 집에서 목욕하는 횟수는 여름에 매일 하는 경우가 거주자의 80%이상, 겨울에 매일 또는 주2~3회가 각각 25%정도였다. 온수공급이 잘 되는 아파트에서 목욕을 할지라도 대중탕을 이용하는 거주자가 여름에 52% 겨울에 65%였다. 서울보다 부산이, 주부보다 남편이 더 많이 대중탕을 이용하여 계절적, 지역적, 성별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대중탕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남자는 주로 사우나, 마사지를 하려는 것이었고 여자는 때를 밀기 위함이었다. 이 당시의 주택에 있는 욕실은 단지 몸을 간단히 씻을 수 있는 곳으로만 생각할 뿐,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때도 밀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 주택 내 2개의 욕실의 위치가 가족공용은 현관 쪽에 위치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으며 안방 전용은 외기와 면하게 하거나 면적을 넓히고 비데, 샤워부스 등이 설치되었고 대형 평형에는 스팀사우나가 설치되기도 하면서 욕실에 대한 개념은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목욕방식은 욕조내의 입욕방식이 아닌 샤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가족용 욕실에도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1995년 이후 급증하였다. 안방용 욕실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결합되어 욕실이 건조공간으로 변하였다.²⁷⁾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중규모 아파트 평면이 전면이 넓어지는 3베이형이 되면서 욕실이 넓어지면서 건식과 습

25) 이영심·신경주(1998). 평형대별, 연대별 아파트 욕실의 변화 서울시의 1970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9(2), 57-66쪽.
 26) 강순주·김상희·住田昌二(1989). 아파트의 입욕공간과 입욕방식과의 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5), 47-57쪽.
 27) 전남일 외 4인, 앞의 책, 118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식을 분리해서 배치하고 창 의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였고 쾌적한 건식욕실을 만들기 위해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이 많아진다. 욕실은 수납공간과 드레스 룸 등의 부수적인 기능들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벽으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내부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욕실 내부에 반신욕, 사우나 기능의 강화와 다기능 샤워기 설치뿐만 아니라 서재와 거실 기능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2개의 욕실의 구성은 공용욕실인 가족용은 현관에 가깝게 배치되면서 세면대+변기+샤워부스의 형태가 되었고 부부욕실은 세면대+변기+욕조의 형태가 많아졌다. 부부욕실은 생리 위생의 기능이외에 휴식의 기능이 더욱 커졌다. 욕실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기본적인 생리·위생기능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50%이상이 머리손질, 반신욕 등 건강, 미용에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²⁸⁾ 점차적으로 욕실 공간은 변기나 세면대 설비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건식형태로 하고 욕조 또는 샤워부스가 있는 공간을 습식으로 하는 형태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상의 공간사용의 특징들은 한국적인 주거생활양식이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면 당연히 되는 것들이 외국인의 관점으로 보면 한국인이 아파트라는 서구주택형식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도 서구적 생활양식이 아닌 한국적 생활양식으로 사는 것이 흥미있어 보이면서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 같다. ‘아파트공화국’을 쓴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²⁹⁾는 1990년대 중반과 2004~2005년에 걸쳐 서울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관찰을 한 결과 여러 가지의 공간사용방식을 문화적 특성으로 보았다. 아파트에서 마당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과 나머지 실들이 높이를 달리 하거나 바닥재의 차이로 구분되어, 현관에서 외출용 신발을 벗고 아파트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발코니로 나갈 때

는 플라스틱 신발을 신는 ‘신발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각 장소의 용도가 한옥구조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발레리는 아파트가 서구주택형식이지만 공간구성과 기능, 사용방식은 전통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당에서 식탁이 있어도 식사시간이외에 별도로 먹어야 하는 가족이 자주 쟁반과 밥상을 이용하여 식당이 아닌 방이나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 방에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이 혼용되고 가구도 좌식용가구와 입식가구가 혼재하는 것, 거실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관습적 측면에서 이질문화의 수용이 나타내는 혼합성, 독특한 한국적인 사용법이라고 보았다.³⁰⁾

4. 앞으로의 생활양식과 단위주택계획

앞으로의 생활양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맞는 단위주택계획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근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규모,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2005년 2.9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출산율의 국가로 가구원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1인가구의 개별 가구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1인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와 같은 비전형적인 모습의 가구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주거공간구성 계획에 대한 예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생활양식은 생활하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으며 연령, 교육, 직업, 소득, 결혼상태, 지역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세대별로 성장과정의

28) 신경주·황윤정·이지현(2008). 중규모아파트 거주자의 욕실디자인 만족도와 선호도 분석-수도권 브랜드 아파트 거주자의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5), 12-22.

29) 발레리 줄레조(2007). 아파트공화국. 김혜연 역. 후마니타스. 177-207쪽.

30) 발레리 줄레조, 위의 책, 192-206쪽.



한국주거의 재조명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사고, 행동에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 주거생활양식도 서로 다르다. 건설업체는 주택 마케팅을 위해 세대를 분류하여 생활양식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들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양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관, 의식주생활, 여가생활, 매체이용실태를 조사하는데 이 중 가치관에서 부부중심·가족중심 정도, 경제 부분에 대한 삶의 가치비중, 취미·여가 욕구 정도, 대인관계 중시 정도, 주택에 대한 비중 등은 주거생활양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들로 볼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른 주거생활양식을 갖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술발달에 따라 최신설비와 시설이 발달하고 이들을 주택에 적용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내에 생산활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기능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오픈 하우스의 주택도 건설되고 있으며 개별 가구마다 다양한 주거생활양식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도 주거공간에는 두 종류 성격의 공간이 존재한다. 문화적 지속성이 강한 공간과, 시설 설비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안방과 거실은 문화적 지속성이 강한 공간으로 기능과 성격이 느리게 변화해온 반면, 부엌과 화장실, 욕실은 편리한 설비와 난방방식에 의해 기능적인 평면구성으로 바뀌며 시대변화에 민감한 공간이다. 안방은 집의 상징적 중심성을 갖는 공간으로 유지될 것인가? ‘안방’이라는 호칭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젊은 세대들도 이러한 호칭에 맞는 공간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 식당이 사회적 공간으로 되어 간다면 부엌과 식당의 크기와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식문화의 특성은 유지될 것인가? 전세계가 일일 생활권화 되고 있어서 문화적 특성보다는 편리와 기능성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그러나 바람직한 주생활양식의 방향설정과 유도는 주생활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건강을 포함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의 바람직한 설정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